

‘전남 제일 수산도시’ 옛 명성 회복 나섰다

여수시 민선 8기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여수시는 여수 인근 바다의 환경정화를 통해 깨끗한 어장을 만들고 어업경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과거 국가산단이 활성화되기 이전 여수는 전남도 제일의 수산도시였다. 하지만 최근 여수 수산업은 지구온난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근어장 생산성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매년 발생하는 적조와 여름철 고수온, 겨울철 저수온 등 복합적이고 예측불허의 원인들은 어업인들 속을 타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최근 양식업의 현대화 및 자동화와 수산물의 판매 촉진 및 홍보 등을 통해 수산관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장선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해양수산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수산업진흥센터팀과 청정어장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정화팀까지 신설하는 등 수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각종 지원 확대 어업경쟁력 강화

여수시는 어촌의 지속적인 유지·발전과 가치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를 실시한다. 기존 수산직불금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어가와 선원 등 영세어업인에 1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다.

총 허용어획량(TAC) 준수 및 수산자원을 적극적 보호하는 어선 어업 단체에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2톤 이하 150만원, 톤수별 차등 지원)’을 지급한다.

각종 수산재해보험을 가입한 어업인들에게 총 8억7000만원을 지원해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보험료 지원으로 어선 1200여척과 선원 3600여명, 어업인 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선어업의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연안어선 12척을 감축한다. 감축 어선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등 총 12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자동소화장치(사업비 8800만원)와 유류절감장치(사업비 4억 6000만원)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한다. 어업인은 지원비를 제외한 40~50%만 부담하면 된다.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민선8기 들어 어업경쟁력 확보와 수산자원 회복,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수산업 살리기 예산에 본격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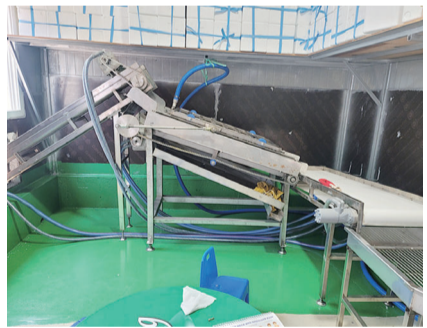
여수시 제공

지원 확대 어업경쟁력 강화 수산자원 회복 현대·자동화 안전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 수산자원 회복, 현대화·자동화

일손부족과 경영비 부담 증가 때문에 체질개선이 필요한 양식어업 분야를 현대화하고 자동화한다. 양식어가에 자동사료급이기와 자동선별기 등 양식어장 자동화 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상 가두리양식장 현대화를 위한 ‘ICT융합 스마트 양식단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양식장 모델 개발 및 ICT융합 실시



간 모니터링, 무인 어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평상시 인력을 절감하고 어업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양식어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 회복 대책도 강화한다.

올해 9억여원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어종인 돌돔과 보리새우, 해삼 등 7종 약 240만 마리를 관내 조성된 바다숲과 인공어초 설치 해역에 방류한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남해수산연구소 등 전문기관과 방류품종 및 장소 등에 대해 협의해 마늘어촌계가 선호하는 정착성 소득형 품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돌돔과 농어 등 어류 종자 318만 마리와 전복 종자 184만 마리, 바지락 종자 96톤을 살포한다. 갯녹음으로 황폐해지는 연안에는 해조류를 이식하고 해적동물을 구제하여 수중 생태계를 복원하는 바다정원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여수시는 안전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양식어장을 깨끗하게 되돌리는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추진, 올해 말까지 총 50억원을 들여 가막만 해역 내 500ha의 양식어장과 공유수면 저질에 퇴적되어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여수통합의 안전성 강화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합성수지

재질의 부착기 190만개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4억원이 투입된다. 완전 교체를 위해서는 약 7200만개(약 25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플라스틱 제로화 방침으로 인해 올년 11월부터는 모든 양식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수산물 안전성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 여수수협 건어물 청정위판장과 거문도 수협 위판장 등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위생시설을 건립해 여수수산물의 국내외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방사능 검사를 올해 160회(작년 94회)로 확대 실시하고, 오염수가 우리시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세부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산물안전센터 건립도 검토 중이다.

정재호 여수시 수산관광국장은 “최근 일어난 여수 양식장 폐사처럼 복합적이고 예측불허의 원인들이 어업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더 요청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산정책을 적극 펼쳐 여수 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내일부터 시민과의 대화 정기명 시장, 5월10일까지

정기명 여수시장이 민선 8기 시민소통시정을 위한 ‘시민과의 열린 대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정 시장은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화양면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정방향과 주요정책을 알리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 질문을 받고 즉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숙원사업과 읍면동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평일 낮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여수이야기’를 통해서도 실시간 대화를 중계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제안 등에 대해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는 한편 예산 확보 등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정책 및 아이디어 등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나 생활 속 불편사항이 있는 시민들은 꼭 참석해 소중한 의견을 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국제크루즈선 내달 첫 입항 여수시, 코로나19 이후 3년만



여수항에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크루즈선이 내달 입항한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전면 금지됐던 크루즈 입항이 지난해 10월 재개되면서 3년 3개월만에 국제크루즈선이 3회 입항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항으로 승객 909명, 선원 854명 등 총 1763명이 여수, 순천 등 주요관광지를 둘러볼 것으로 보인다.

우선 4월 첫 입항하는 실버 위스퍼호는 실버시 선사가 운영하는 2만8258톤, 길이 186m 규모 크루즈로 승객 382명, 승무원 295명 등 677명을 태우고 여수항을 찾는다.

실버 위스퍼호에 이어 5월에 포넌트 선사 ‘리 소레알(Le Soleal)’호가, 10월에는 실버 위스퍼(Silver Whisper)호가 재입항할 예정이다.

시는 당장 내달 첫 입항에 따른 환영행사 마련, 환전소 운영, 관광 안내소 정비 등과 함께 관광객에 맞춤형 관광코스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 등 입항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신영자 관광과장은 “이번 크루즈 입항으로 우리 여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팸투어 등을 통해 크루즈 선사 및 관계자들과 교류하고 국내외 MICE 홍보 활동과도 연계해 국제크루즈 유치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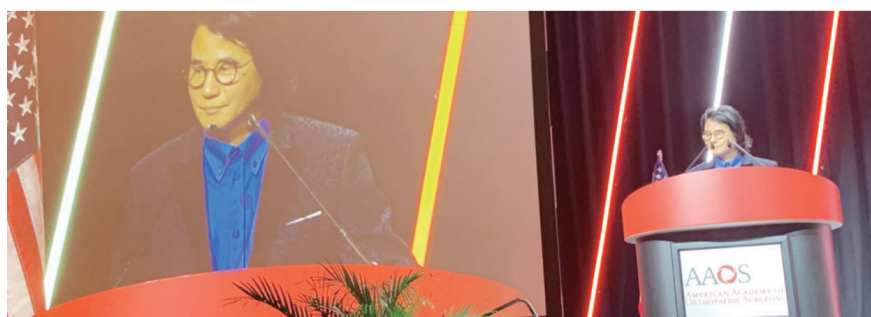
백창희 여수백병원 원장, 미국서 어깨힘줄 이전술 공개

여수백병원 백창희 병원장이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새 수술법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13일 여수백병원에 따르면 백 원장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미국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국정형외과 학회에서 수술기법을 선보였다.

백 원장은 어깨 인공관절후 내회전 기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수술 방법을 공개해 이날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부분 어워드상을 수상했다.

비디오 어워드 수술 부분은 관절 분야별 치료법을 선정하는 데 어깨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여수백병원 수술 방법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백 원장은 라스베가스



어깨힘줄 이전술을 설명하고 있는 백창희 여수백병원 원장.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4시 미국정형외과 학회(2023AAOS)에서 수상 트로피를 받았다. 미국정형외과학회(AAOS) 비디오 부문 부분 수상작 선정 기준과 과정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에서 제출된 정형외과 치료 부분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엄선된 관련 전문 위원들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한다. 제출한 비디오에 대한 교육적 가치, 높은 프리젠테이션 품질, 환자에 대한 유

용성과 좋은 치료 결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세계 의사들은 일주일 동안 상영되는 비디오 앞에서 여수백병원의 수술 방법을 반복해서 보고 배우며 사진 촬영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백 원장은 심사위원으로부터 ‘놀랍다’는 감탄사를 연거푸 받기도 했다.

백창희 원장은 “어깨힘줄 이전술은 다른 어깨 수술보다 집중력과 세심,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힘든 수술이긴 하지만 어깨힘줄 파열이 심해 봉합이 불가능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